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0. 23.(월) 11:00,
(지면) 2023. 10. 24.(화) 조간

배포 2023. 10. 23.(월) 06:00

해양을 통한 청색경제의 새로운 방향 찾는다

- 10. 24.~10. 26. 부산에서 해양 분야 대표 국제학술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블루테크노미(Bluetechonomy)*'를 주제로 열리며, 세계적인 석학이자 '엔트로피' 등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기조 강연 '3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회복력 시대(Towards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an Age of Resilience for Korea)'를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해양을 의미하는 블루(BLUE)와 기술의 테크(Tech), 경제의 이코노미(Economy)를 포함하는 조어로서, 친환경(BLUE) 첨단 기술(Tech)로 국제 해양 청색경제(Economy)의 새로운 국면을 주도해나간다는 의미

포럼에는 해양과학기술,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1개국 89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www.wof.kr)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7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6년간 49개국에서 894명의 연사와 5만 7천여 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을 통한 청색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담당자	서기관	이형민 (044-200-5221)
<협조>	해양산업총연합회	책임자	팀장	차지혜 (051-461-4345)
		담당자		안유신 (051-461-4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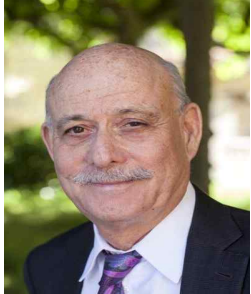
참고1

전체 프로그램

일시	시간	세션
Day 1 10월 24일(화)	오전 10:00 – 12:00	[해양정책] 해양 수산 과학기술
	오후 15:30 – 20:00	[개막식과 기조연설] Towards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an Age of Resilience for Korea
Day 2 10월 25일(수)	오전 10:00 – 12:00	[해양도시네트워크] 동북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도시 간 네트워크
		[해양금융] Challenge for the future maritime finance
		[SMR 선박]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해양용 SMR
	오후 13:30 – 16:00	[해양인문학] 가덕, 지난한 삶의 기록과 보존
		[조선해양] 2050 탄소중립 시대 오션 모빌리티 및 해양 디지털 솔루션 기술의 대전환
	오후 16:30 – 18:30	[해양디자인] 조선·해양산업과 안전디자인 [50주년 기념 KIOST스페셜] KIOST 50년, 해양과학기술의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Day 3 10월 26일(목)	오전 10:00 – 12:00	[해운항만] 전환의 시대, 해운항만물류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수산] BlueFood & FoodTech Innovation
	오후 13:30 – 18:00	[크루즈] K-Cruise homeport strategy : K-Culture, Tech & IT
		[해양바이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해양바이오
	오후 16:30 – 18:30	[에필로그] 블루테크노미 이후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

사진	구분	주요 약력
	경제학자, 문명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FOET) 이사장 -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비즈니스스쿨 경제학과 졸업 [저서] <p>《회복력 시대》, 《3차 산업 혁명》, 《엔트로피》,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 《유러피언 드림》, 《바이오 테크 시대》, 《수소 혁명》, 《생명권 정치학》, 《한계비용 제로 사회》, 《글로벌 그린 뉴딜》등 23권 출간</p>

□ Bio

- 1945년 출생
-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은 미국의 미래학자, 작가, 경제학자이다. 20년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고문을 지내며 신성장 장기 계획의 청사진을 그렸다. 현재 워싱턴 경제동향연구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비즈니스스쿨에서 경제학 학사로 졸업하였다.
- 리프킨 저서에서 나타나는 문명비판은 환경철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문명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환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엔트로피, 육식에 대한 비판이나 생명 현상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 생명공학이 21세기에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학문이 될 것이라는 그의 예측도 이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입각점 때문에 그는 반문명론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저서 소개

- 회복력 시대 :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기후는 따뜻해지고 있으며 지구는 야생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산업 발전을 이끈 효율성의 원칙이 우리를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두었지만 결국 자연계의 파멸을 이끌었다. 어떻게 대멸종을 피하고 삶을 지속할 것인가?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회복력 시대』에서 죽어 가는 진보의 시대를 해체하고 부상하는 새로운 문명의 서사를 제시한다.
- 수소 혁명: 석유시대의 종말과 세계경제의 미래 : 제러미 리프킨은 <수소 혁명>에서 수소 에너지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 체계로 안내한다. 산업 시대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인류는 빠른 속도로 화석 연료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석유 자원이 몇 십 년 안에 고갈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석유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적절한 가공을 거친 수소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연료'이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다. 수소 연료는 많은 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 차량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망(HEW)에 각자의 연료전지를 연결하는 분산적 시스템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권력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다. 저렴한 수소 에너지는 제3세계를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또한 세계 권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3차 산업혁명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집과 사무실, 공장에서 스스로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인터넷'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청사진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수천 개의 비즈니스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평적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경제·사회·문화·교육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무한 경쟁의 산업 시대에서 상생 공존의 협업 시대로 가기위한 3차 산업혁명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를 살펴보고, 지금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어 모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